

COVER STORY

Vulnerability로 이끌기



조은아 PhD

Dean of the Gordon-Conwell Institute
Associate Professor of Intercultural Studies

Vulnerability

동정(sympathy)은 공감(empathy)과 다릅니다. 고통 받는 사람과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그저 측은히 여기는 것에 멈추는 동정과는 달리, 공감은 안전 거리를 떠나 고통 받는 자와 함께 고통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와 연결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감과 긍휼(compassion) 사이에도 간극이 존재합니다. 공감에 행동(Action)을 더 한 것이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감을 넘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살덩이”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고통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긍휼의 경계선도 넘으셨습니다. 험한 십자가 위 수치스런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벌거 벗으신 채로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 하신”(히12:2) 것 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Vulnerability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끌어 안으신 Vulnerability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 것입니다(요10:10).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골1:15)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

할 빛에 거하시는... 존귀와 영원한 권능”(딤후6:16)의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시며” 진토에까지 내려오심으로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에 있던 우리가 일으킴을 얻고 세움을 입게 된 것(시편113:5-7)입니다.

Vulnerability로 이끌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엡4:13) 이르도록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엡4:12) 부름 받은 우리도 Vulnerability를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계7:9) 모이는 우리의 이웃의 입에도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차 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시 126:2-3)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지체들을 이끌어야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가을학기 대면공동학습 강의 중 고백한 대로 제 삶 속에 배우기를 그치는 그 때가 가르치기를 그치는 때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기를 그치는 그 때가 누군가를 이끄는 것도 그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이쯤에 있어서 저는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Vulnerability는 제 안에 초기 설정 된(default), 자동적으로 취하게 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해야만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OUR STORY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가 담아낸 우리들의 이야기!

남재현 목사 (해운대제일교회)

가을 바다의 정취를 품은 해운대 거리를 지나 조용한 미소로 반겨준 남재현 목사님은 해운대제일교회의 성실한 목회자입니다. 그가 마지막 부흥을 경험한 세대라고 말하는 3040 지체들을 섬기며 도심 속 가정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으로 이어지는 사역 중에도 매주 코호트 줌 만남을 통해 교육의 책임을 학생 홀로 지지 않고 함께 나눠 지는 최고의 학습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행복감도 나눠 주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3040 세대를 위한 사역과 투병 중에 계신 부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남재현 목사 (코호트A)



하대중 목사 (코호트B)

하대중 목사 (울산섬김의교회)

세대가 함께 모여 한 예배, 한 나눔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울산섬김의교회입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승화시킨 하대중 목사님은 평신도와 교역자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더워드" 사역을 통해 바른 가르침과 지도자 양성의 비전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학기 "강해 설교" 과목이 온가족이 함께 듣고 결단하는 하대중 목사님의 주일 설교 메시지에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울산섬김의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힘차게 이어갈 수 있도록 울산섬김의교회와 더워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GCI STORY

가을학기 대면공동학습 | 리더십

가을학기 대면공동학습이 10.31.~11.1 안성수양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입학감사예배를 시작으로 4회의 강의와 2회의 소그룹 Reflection을 통해 문화적 지성으로 이끄는 리더십으로의 역량 개발을 위한 깊은 통찰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육신적 모델을 따라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공훈의 리더십

권위가 아닌
Vulnerability 로 이끄는 리더십

VUCA 세상 속에서
지혜의 커뮤니티로 이끄는 리더십

커리어가 아닌 소명으로
돕는 "인대"가 되어 이끄는 리더십



대면공동학습은 네팔, 라오스, 미국의 해외 학습자들과 부득이한 상황으로 현장 참석이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진행 되었습니다. 온라인 참가자의 소그룹 Reflection은 조은아 교수가 직접 인도하며 온라인 환경으로 인한 교육 간 거리를 최소화 했습니다.



소그룹 Reflection 시간에는 각자가 처한 환경과 목회적 상황은 다르지만 가을학기 과목 개인학습과 공동성찰, 그리고 대면공동학습의 내용을 뒤돌아 보며 고민과 반성의 진솔한 나눔을 가졌습니다. 지혜의 공휴함을 덧입은 문화적 지성으로 이끌기란 무엇인가? 우리 시대의 영혼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어떤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미 굳어져버린 시스템 안에서 "Performance"가 아닌 "돕는 인대"로 사역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순종하며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일하는 목회자, 사역자로 "Finishing Well(끝까지 잘 마침)" 할 것인가? 이런 묵직하고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자신과 서로를 성찰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면공동학습에 참여 했던 코호트 A의 어느 목사님은 "할만 한 건 다 해봤던 지난 20년간의 목회... 덕분에 죽은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후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죽은 세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역 역량 프로그램의 첫 대면공동학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의 리더십을 성찰하는 사역자로의 결단과 헌신의 고백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GCI 알림

가을학기 마무리 안내

- 가을학기는 11월 30일에 마치게 됩니다. 가을학기 과제가 미제출 되었다면 11월 30일까지 플랫폼 해당 업로드 란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월 학사일정 중 코호트별 멘토링 세션은 12월 겨울학기 첫 멘토링 세션과 통합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시와 장소는 코호트별 단독방, 혹은 줌 만남을 통해 결정,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외 학습자 분들께서는 담당 멘토께 미리 연락하셔서 참여 방법을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학기 준비 안내

- 12월부터 3개월 간 겨울학기가 진행됩니다. 겨울학기 플랫폼 초청 이메일은 12월 1일 발송되오니 이메일을 확인하시고 기존 회원정보로 로그인 하셔서 겨울학기 자기주도학습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학기 과목

장르별 강해설교

지도 교수: Jeffrey Arthurs

학기 기간: 2022. 12 - 2023. 02

대면공동학습: 조정민 목사 / 2023. 01. 30-31 /
진새골 사랑의집

GCI 기도

- 그리스도의 성육신 모델을 따라 문화적 지성으로 이끄는 리더십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게 하소서.
- 가을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겨울학기를 은혜 중 시작하게 하소서.
- 사역 중에도 학업이 뒤쳐지지 않게 하시고 배우기를 그치지 않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 GCI 사역역량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의 구체적 사역역량 개발 교육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www.GCI-Korea.org

gcikorea@gordonconwell.edu



사역역량
프로그램

목회학 석사(M.Div.) 학위자가 본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고든콘웰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D.Min.) 학위과정 2년차로 편입이 가능합니다.